

지역 품은 광주 백화점 상생 행보 눈에 띄네

롯데백화점 광주점, 업계 최초 로컬푸드 전문관 신설 광주신세계, 11월 8일까지 23개 청년기업 직매장 운영

광주 주요 백화점들이 업계 최초로 로컬푸드 전문관을 신설하고 청년기업 판로를 마련해주는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상생 행보를 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다음 달 5일 백화점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로컬푸드 전문관을 지하 1층에 문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두 달 전부터 100㎡ 규모 로컬푸드 전문관을 조성해왔다. 이곳에서 선보이는 모든 상품은 100% 생산자 실명제로 판매된다.

당일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이 광주 도심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모두 중간 유통단계 없이 직거래된다.

이 전문관에는 '전남도 로컬푸드 직매

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지난 7월 전남도가 공모를 통해 직매장 운영 사업자를 화순 도곡농협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롯데백화점 호남총점 지역과 전남도가 맺은 '농수특산물 판로 확대 업무 협약'으로 시작된 사업 중 하나이다.

이 매장에서는 화순 700여 농가가 생산하는 상추, 방울토마토, 깻잎 등 신선 농산물을 만날 수 있다. 전남지역 식품명인들의 가공 식품 800여 개 품목도 매대에 오른다.

정운성 롯데백화점 호남총점지역장은 "당일 생산된 신선한 로컬푸드를 업계 최초로 전문관 형태로 선보인다"며 "지역 상

생에 앞장서고 농가 소득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다음 달 5일 새단장한 식품관을 1차적으로 공개한 뒤 조리식품 특화매장인 '광주키친'과 지역 우수 맛집 등을 선보이는 식품관을 내년 1월까지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주)광주신세계는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로 광주 청년기업 유망 상품을 선보이는 '광주리장터'를 오는 30일부터 11월8일까지 1층 행사장에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6월 광주신세계와 광주시서구, (사)창업지원네트워크가 맺은 '청년창업과 사회적기업 판로확대 및 성장지원'을 위한 협약의 연장선으로 마련됐다.

광주리장터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열렸다.

이곳에서는 생활용품, 공예품, 잡화, 식품가공, 의류, 화장품 등 총 23개 청년기업이 선보이는 우수 상품을 만날 수 있다.

▲편백도마·캐릭터수세미·동전지갑·살균제 등 생활용품 7개팀 ▲머그컵·찻잔세트·휴대폰 가방·채반·명암지갑·폰 거치대 등 공예품 6개팀 ▲실버 귀걸이·머리 장식품·모자·양초 등 잡화 3개팀 ▲유기농 양파진·호박 농축액·고구마 말랭이·영양제·우리밀 쿠키 등 식품가공 4개팀 ▲필라테스 레깅스·플리스 재킷·목도리·손수건 등 의류 2개팀 ▲목욕용 비버바·석고방향제 등 화장품 1개팀이 참여한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는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입이 더욱 어려운 시기"라며 "우리지역 우수 상품의 판로를 넓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쌀쌀할 때는 과일차”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 직원들이 겨울철을 앞두고 유자, 모과, 레몬, 자몽과 꿀로 만든 과일청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보해양조, 과일맛 소주 '원샷' 싱가포르 공략 나선다



복숭아·수박맛 등 5종...1억6000만원 상당 25만병 수출

1년을 기다렸다 스타벅스 플래너

내일부터 연말까지 진행
플래너 4종·크로스백 3종

매년 '다이어리 굿즈' 열풍을 일으킨 스타벅스커피 연말 행사가 오는 30일부터 진행된다.

올 여름에는 여행용 가방과 간이 의자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매장 앞에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작은 가방(크로스백)을 증정품으로 내걸었다.

(주)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이달 30일부터 12월31일까지 '크리스마스 e-프리퀀시 이벤트'를 연다고 최근 밝혔다.

증정 상품은 2021 스타벅스 플래너 4종과 폴더블 크로스백 3종으로, 이 중 선택할 수 있다.

크로스백은 1회 교환 때 색상별 최대 각 2개씩 총 4개까지만 교환이 가능하다. 스타벅스는 플래너와 폴더블 크로스백의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무료 음료권 2장으로 대체 증정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보해양조가 싱가포르 수출 전용 제품을 개발해 수출에 나서는 등 동남아 시장 공략을 추진한다.

28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보해는 최근 과일 맛 주류를 좋아하는 싱가포르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한 수출 전용 제품인 '원샷소주'를 만들었다.

이번에 수출하는 원샷소주는 총 5가지 종류로, 기존 소주의 맛과 향이 유사한 알코올 도수 14도인 '오리지널'을 비롯해 10.1도인 '복숭아맛', '리치맛', '청포도맛', '수박맛'이다. 원샷소주는 기존 일체주와 동일한 조류색 병에 담기며 용량은 360ml다.

1차로 공급되는 물량은 1억6000만원 상당인 약 25만병이다. 싱가포르 현지 업체를 통해 수출길에 오르며 현지 편의점과 마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유통될 예정이다.

보해양조는 한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주류문화에 관심을 갖는 싱가포르 현지인들에게 친숙해진 단어인 '원샷'을 제품명으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보해양조는 현지 업체와 맛과 향, 청사과맛 등 다른 제품에 대한 생산 및 수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3월 복숭아맛 소주 '달콤'을 호주에서 출시한 뒤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보해양조는 다양한 과일소주를 활용해 동남아 시장의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임채현 해외사업팀장은 "싱가포르는 열대 과일에 대한 선호가 강해 과일맛 소주를 찾는 소비자들 많다"는 점에서 원샷소주를 수출하게 됐다"며 "반응에 따라 추가 수출 및 다른 동남아 국가로의 협상도 진행 중이어서 매출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

귀뚜라미, TV홈쇼핑 통해 프리미엄 시장 확대

CJ오쇼핑서 판매 방송

귀뚜라미가 TV홈쇼핑에 진출하며 프리미엄 친환경보일러 시장을 확장한다.

(주)귀뚜라미(대표 최재범)는 지난 27일 'CJ오쇼핑'에서 이달 출시한 '거꾸로 뉴컨덴싱 프리미엄 가스보일러' 판매 방송을 하며 TV홈쇼핑 진출을 본격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품은 환경부 인증 친환경보일러에 최신 정보통신기술과 온수증대기술 등 최고급 사양을 모두 적용한 프리미엄 모델이다.

프리미엄 가스보일러는 사물인터넷(IoT) 실내온도조절기를 적용해 보일러 1대에 최대 4대의 모바일 장비를 연결할 수 있게 했다. 스마트폰으로 집안 보일러를 제어하거나 인공지능(AI) 스피커와 연동해 음성으로도 보일러를 작동할 수 있다.

보일러 사용 정보를 학습해 최적의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기능'과 실시간으로 보일러 상태를 알려주는 '자가 진단 알림 기능'도 포함됐다. 에너지

사용량 표시, 난방비 절약기능, 음성안내, 모니터 자동밝기 조절, 차일드락(잠금기능) 등으로 편의성도 높였다.

대용량 온수공급에 특화된 저장식 보일러 구조에 온수증대기술을 더해 기존 모델 대비 최대 34% 더 많은 온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사용자가 1도 단위로 설정한 온도에 맞춰 온수를 더 빠르게 일정하게 공급한다. 가스누출탐지기와 지진감지기를 장착해 안전성도 겸비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지원 사업'을 이용하면 설치 후 지원금 최대 20만원도 받을 수 있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올해 4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환경부 인증을 받은 친환경보일러가 의무화됨에 따라 귀뚜라미는 친환경을 넘어 프리미엄 제품으로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홈쇼핑 방송은 보일러도 이제 첨단 가전제품이라는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일반 보일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급형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의령 玉氏 대동보(족보) 발간 알림

◆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뭉개
코로나-19에도
뿌리 깊은 의령옥씨의
신축대동보(2021) 발간을
준비합니다.

◆ 의춘사 전경

◆ 의령옥씨 상징탑

◆ 의령옥씨 뿌리관련 간행물

◆ 시조 의춘군 옥 진서를 비롯한 상계선조14위를 모신 의령옥씨 사당
◆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신전리

◆ 대전 효문화뿌리공원 내에 설치된 의령옥씨 상징탑
◆ 전국 222개 성씨 참여

◆ 갑자보(18C4년) ◆ 기묘보(1999년)
◆ 계해보(1863년) ◆ 학사공파(1935년)
◆ 정미보(1907년) ◆ 평장사공파(2012년)
◆ 갑오보(1954년) ◆ 의령옥씨 1500년사
◆ 병진보(1976년) ◆ 옥보고략 등

◆ 수단등록기간 : 2019년 12월 1일~ 2020년 11월 30일

◆ 연락처 : 051-504-8912 ◆ 팩스 : 051-504-8913

◆ 편찬위원장: 옥 삼중, 옥 형길 ◆ 사무총장 치원 010-6580-4493 ◆ 사무국장 종석 010-3855-8377

◆ 별시위공파: 대표 동환 010-2796-1775 ◆ 감사공파 : 대표 도민 010-2999-6886

◆ 교리공파 : 대표 영호 010-9581-0454 ◆ 평장사공파: 대표 평권 010-3797-6326

◆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원남로15번길 7 오름빌딩 8층

◆ 홈페이지 : <http://www.uroak.com> 치운 010-9606-2589

◆ E-mail : orumeng1@naver.com

의령 玉氏 대동회장[추진위원장] 옥 치 남 010-3550-8912

◆ 이북에 고향을 둔 의령 玉氏 종친들(학생공파, 학사공파, 평장사공파)께서는 보다 더 큰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 간혹 호적상 본관이 거제, 밀양, 반성, 사천, 의성, 진주로 신고 된 옥씨의 원 뿌리도 당나라에서 고구려에 파견(635년)된 정관팔학사 의령 玉氏의 시조 玉眞瑞옥진서임이 명확합니다.

※ 최근 본관이 진주로 등재된 玉氏가족이 의령 玉氏족보를 근간으로 본관을 진주에서 의령으로 정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